

# 걸도는 광산구 인사관리규정 ‘유명무실’ 지적

### 민선6기 개정된 규정 8기와 충돌 전략동·동장 추천제, 명목만 유지 “현실에 맞게 대폭 손질해야”

광주 광산구의 인사관리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진 탓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 내부에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인사권자인 구청장의 인사 원칙까지 발목을 잡고 있어 대폭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광산구 등에 따르면 구는 공직자의 승진 및 전보, 징계 등 공직 내부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해 인사관리 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인사관리규정은 민선 6기 당시 구청장의 의지를 반영해 집행 개정된 것으로, 민선 8

기 인사원칙 등과 충돌하면서 인사 행정 등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실제 광산구인사관리 규정 가운데 제5장과, 제6장, 제7장, 제9장 등 4개 항목은 민선 6기인 2014년 개정됐는데, 민선 8기 들어 명목만 유지하고 있다.

대표 사례가 ‘전략동’을 지정해 운영한다는 규정이다. 해당 규정을 살펴보면 광산구 21개 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역사전통도시, 희망복지도시, 상생경제도시, 자연생태도시, 행복창조도시로 구분한 ‘전략동’을 운영하도록 돼 있다.

‘전략동’ 운영 규정은 개정 당시인 민선 6기에는 인사권자의 의중에 따라 반짝 시행됐으나 취지에 부합하는 별도의 권한이 없는 제도적 한계 등으로 현재는 공직 내부 기구표에만 표기돼 있다.

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임명한다는 ‘동장 추

천제’ 규정도 승진대상자를 놓고 시행하다 보니 각종 문제점만 노출하고 있다. 특히 승진 대상자를 심사하면서 실시하고 있는 상호평가 제도의 경우 광산구 공직 내부에서도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직원은 “같이 근무를 해본 적이 없고 알지도 모르는 직원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인쿠르트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편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다른 직원은 “그동안 인사권자들이 객관적이지도 않는 상호평가를 승진대상자를 탈락시키는 핑계거리로 악용하기도 했다”면서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일부 시행중인 직위공모제도 과정과 절차가 투명하지 않은 등 기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으니 공직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반감이 커지고 있다.

광산구도 내부 여론을 의식해 민선 7기와 8기에는 전혀 관련 인사규정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광산구가 이처럼 각종 문제점이 드러난 인사관리규정을 방치한 배경을 놓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최근 공직을 퇴직한 A씨는 “해당 인사규정이 민선 6기 인사권자의 의중에 따라 제정돼 자칫 흔적 지우기로 보일까봐 공직 내부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특히 당시 인사권자가 현재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광산구의회 해당 지역구 구원의원 반감 등도 살 수 있어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 관계자는 “그동안 인사관리규정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산 청청 잇수다’ 청년 1인 가구 프로그램 추진

광주 광산구는 “청년 1인 가구의 안정된 삶과 미래 희망을 뒷받침하는 사회관계망 구축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광주시 2023년 1인 가구 특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급증하는 1인 가구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공모에서 광산구는 홀로 살아가는 청년의 역량 강화, 사회관계망 구축을 지원하는 ‘청년의 꿈과 삶을 잇다-광산 청청 잇수다’ 사업을 제시해 최종 선정됐다.

202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39세 청년층에 해당하는 1인 가구는 2만1217명으로 광산구 전체 1인 가구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 이후 홀로 사는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광산구는 청년들이 겪는 사회적 단절, 소통, 대인관계 어려움 등 경제·정서적 문제 해결을 돕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로부터 6000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광산 청청 잇수다’는 나, 꿈, 우리, 삶 4개 분야 9개 프로그램으로 이뤄진다.

‘나’는 건강한 일상생활 지원하는 것으로, 공간정리 컨설팅, 건강체크 및 건강한 식생활 실천 지원, 마음 건강을 위한 심리검사 및 상담 등을 추진한다. ‘꿈’은 구직 준비, 재테크 교육, 제테크 등 경제자립에 필요한 교육, 미래 탐색 등 희망하는 미래를 그리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우리’는 소셜다이닝(밥상모임)을 활용한 청년 간 교류 및 소통, 새활용(업사이클), 반려식물 등 취미 모임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은 가족, 이웃 등과 따뜻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소통법, 갈등 조정 기술 등을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광산구는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고, 지역 복지관, 청년단체와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오는 5월부터 연말까지 밀도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광산형 통합돌봄 1호 대상으로 선정된 A씨 가정을 방문해 어려움을 청취하고 있다.



광산구 송산근린공원 일원에서 지난 1일 열린 ‘명품 30리길 함께 걷자’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명품길 조성사업 참여를 다짐하고 있다.

## ‘광산구청장 직통문자민원’에 답하다 ‘치료·생계 막막’ 1호 대상자 도움...2호는 저장강박 독거세대

광주 광산구가 가족이 없어 병원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광주+광산형 통합돌봄’ 1호 대상으로 선정하고, 병원동행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이달 초 박병규 광산구청장에게 전달된 한 통의 문자가 계기가 됐다.

교통사고로 장애를 얻고, 우산동에 홀로 거주하고 있는 A씨(67)는 ‘구청장 직통문자민원’ 서비스를 통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생계 어려움으로 너무 막막하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평소에도 만성질환에 시달려 온 그는 지난 2월 ‘다발골수종’ 진단을 받아 화산전남대병원을 오가며 항암치료를 해야 하는 처지다.

하지만 가족과 연락이 끊기고, 마땅히 돌봐줄 사람도 없어 불편한 몸을 이끌고 화산까지 병원을 오가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 병원비도 큰 부담일 수밖에 없었다.

그의 도움 요청에 광산구는 광주+광산형 통합

돌봄으로 응답했다. 지난 1일부터 식사 및 가사 지원과 더불어 광산구 자체 특화사업인 병원동행 ‘휴블런스(휴먼+앰블런스)’를 통해 A씨의 병원 이동, 치료, 귀가 전 과정을 지원한다.

광산구는 A씨와 함께 다년간 저장강박으로 고통 받고 있는 B씨(58)를 2호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원에 나섰다. 집 입구부터 안쪽까지 물건이 가득 쌓여 생활에도 큰 지장을 주고 있는 상태로, 우선 물건 정리, 집안 청소, 방역, 방충 등 환경 정비를 마무리했다.

박 구청장은 “가장 앞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운영해 온 광산의 노하우,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돌봄콜(1660-2642)로 신청 및 문의할 수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두 발, 두 바퀴로...광산 명품 30리길 ‘만끽’ 동호인·시민 등과 ‘함께 걷자’ 행사...황룡강변 명품길 코스 체험

광주 광산구는 “지난 1일 시민과 함께 걷고, 자전거를 타며 황룡강을 따라 이어진 명품 30리길 코스를 체험하는 ‘명품 30리길 함께 걷자’ 행사를 황룡강변에 마쳤다”고 밝혔다.

‘걷기’와 ‘자전거타기’의 앞 글자를 따 ‘걷자’라는 명칭을 붙인 이번 행사는 송산근린공원 주변 5.5km 걷기 코스와 송산근린공원에서 출발해 임동교 앞까지 이르는 20km 구간 황룡강 자전거길 코스에서 진행됐다.

명품 30리길 ▲송산근린공원 ▲서봉진수지구 ▲황룡진수공원 ▲장록습지 4개 거점 중 ‘걷다 보면 습동이 트이는 산소풍진길 송산’이라는 테마를 내세운 제1코스에 해당하는 구간이다.

광산구 트레킹 협회와 동별 걷기 동아리, 시민 200여 명은 두 발로 걸으며, 100여 명의 자전거 동호회원들은 두 바퀴로 달려며 봄기운이 완연한 황룡강변의 명품길 코스를 체험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집결·출발지이자 걷기·라이딩 종점인 송산근린공원에서는 자원순환 부스, 건강부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됐다.

코스 완주 후에는 송산근린공원 내 플라타너스 숲에서 ‘숲속의 작은 버스킹’ 공연이 현장 분위기를 달궜다.

광산구는 앞으로도 많은 시민이 직접 보고, 느끼며 명품 30리길을 알아갈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민선 8기 광산구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 명품길 조성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만 이룰 수 있다”며 “대한민국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광주를 대표하는 명품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시민이 찾고 즐기며 새로운 생각, 지혜를 모으는 장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산구 서봉 파크골프장’ 전국대회 가능 공인 인증

광주 광산구는 “호남대학교 인근 황룡강 하천부지에 조성한 ‘광산구 서봉 파크골프장’이 (사)대한파크골프협회로부터 전국 대회가 가능한 경기장으로 공인 인증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호남 최대이자 광주 최초 36홀로 조성된 광산구 서봉 파크골프장(6만587㎡)은 지난해 11월 공식 개장했다. 이번 공인 인증으로 황룡강의 아름다운 경관과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된 서봉 파크골프장의 전국 대회 유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광산구는 파크골프장 이용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서봉 파크골프장이 전국 최고의 명품골프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설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광산구 서봉파크골프장은 원활한 잔디 생육과 활착을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임시 휴장 중이며, 오는 25일 재개장 예정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